

버무리고 맛보고...김치로 하나되는 세상

25~28일 광주 세계김치축제 경연·체험 등 다양한 행사 조선시대·북한 김치도 만나

김치 중추도시 광주에서 '김치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세계김치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김치축제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다. 김치관련 경연, 전시, 체험, 판매, 문화행사 등 김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김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올해 김치축제는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예년 행사와 차별화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김치버무리기 체험, 김치를 넣은 쿠키 만들기, 모바일 사진 촬영대회, 관람객이 즉석 참여하는 '배추노래방', 청소년 댄스 경연 '소리치고 비비자' 등 체험 콘텐츠를 풍부하게 준비했다.

모든 김치 판매점에서는 시민들이 현장 택배신청을 통해 전국의 친지들에게 명품 김치를 아이스박스 포장해 선물할 수 있다. 김치시식코너에 꼬마 주먹밥이 준비돼 밥과 김치를 함께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광주세계김치축제의 꽃은 단연 김치 최고수를 뽑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다. 전국의 숨은 김치 명인을 발굴해 경연을 거쳐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뿌리를 주제로 하는 김치'로 자유종목 주제를 정해 진정한 김치 장인을 선정하는 것이 주목을 끈다. 사전예선을 거쳐 선정된 전국의 20개 팀이 25일 김치축제 개막

일에 본선을 진행하며 출품작은 축제 기간 축제행시장에 전시된다.

한 팀을 이뤄 김치를 넣은 응용요리를 만드는 김치응용요리경연 뿐만 아니라 월드마스터 셰프들이 광주의 김치를 배우고 자기 나라의 요리에 김치를 접목한 응용요리를 만들어 방문객과 나누는 월드마스터 셰프 김치대전도 흥미롭다. 세계적인 셰프를 만나고 싶다면 26일과 27일에 광주김치타운을 찾으면 된다.

광주김치축제에서는 국내 어느 지역의 축제에서도 만날 수 없는 김치를 전시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 속의 김치', 남과 북의 김치를 만나볼 수 있는 '동일김치 한마당'도 마련된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한 '동일김치 한마당'은 전국 팔도 김치, 북한의 현대 김치,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의 김치와 탈북 요리 전문가가 만든

북한 전통 김치를 전시하고 김치명인 아카데미, 북한의 속도전떡과 광주김치를 함께 먹어보는 시식 행사와 탈북 예술가의 작은 공연이 곁들여진다.

축제에서는 광주지역 김치는 물론,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프리미엄김치와 전국의 유명 김치를 직접 맛보고 살 수 있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신안 비금의 천일염, 함평의 고춧가루도 구입할 수 있고 전남에서 생산한 전통주를 비롯한 농식품도 판매한다.

올해는 세계를 일주했던 '세계일주 김치버스'도 현장에 전시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전세계 34개국을 누비며 김치와 한국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렸던 버스를 원형 복원해 김치박물관에서 영구 전시하고, 그동안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 맛은 우치동물원 나들이 명소 인기

가을을 맞은 우치동물원이 가족단위 관람객과 유치원생, 초·중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75만여명이 찾은 우치동물원에 올 가을에는 9월에는 4만5000여 명이 10월에는 1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폭염이 끝난 계절적 요인과 함께 그동안 보행로를 정비하면서 해양 동물사, 원숭이사, 표범사 등 동물사 5곳을 리모델링하고, 파고라, 그네의 자, 관람데크 등 편의시설도 꾸준히 확

충해는 결과로 풀이된다.

우치동물원은 서울동물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동물 종류가 많은 곳으로, 여우원숭이, 뱀갈호랑이 등과 함께 특히 올해 새로 개장한 해양동물사의 물범과 수달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동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가을꽃 포토존(사진), 국화 전시장, 동물을 관람하다 쉬 수 있는 그네의자와 해먹 등도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한몫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대구 여성단체 '친선과 소통의 만남'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17일부터 이틀간 대구를 방문해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만난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주-대구 여성단체 교류협력 사업'은 영호남 여성단체 간 친선과 화합과 소통의 자리다.

이번 방문기간 양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우수사업 소개 및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구를 대표하는 사찰 '동화사', 영천 한의마을, 포은 정몽주의 충효와 그의 정신이 담긴 '임고서원' 등을 탐방한다. 또 대구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 설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에는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3명이 광주를 찾아 북구 시화마을, 나주 영산강 황포돛대 체험, 광산구 월봉서원 선비체험 등 광주여성친화마을 현장과 호남정신 문화자산을 체험하고 하반기 만남을 약속했다.

김경란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영호남 지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광주-대구 여성단체의 '달빛동맹'이 더욱 끈끈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상을 입히다 in 상내촌마을 계단벽화그리기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본부장 이승우)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자원봉사자, 호남대 예술대학 학생 등 100여명이 북구 양산동 상내촌 마을에서 '상상을 입히다 in 상내촌마을 계단벽화그리기'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KT&G 상상유니브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인 '상상을 입히다'는 노후화된 구도심 계단과 벽화 그리기와 환경개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검사 식용 적합 판정

시민 악취 불편 해소...내달 9일까지 채취 기간 운영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채취 기간 운영은 은행나무 열매 낙과 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월 하순 주요 도로변 10곳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납 0.1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 이

하로 식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5개 자치구 공원 녹지과로 사전 신청을 하고, 요령 등 주의사항을 교육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구만 사용해야 한다. 또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신청없이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전국 첫 생활복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광주시 동구가 16일 "생활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TF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생활복지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민·관 사회복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생활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TF팀은 지난 15일 구청3층 상황실에서 발대식과 더불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지역특색을 반영해 주민기본

생활을 점진·지원할 수 있는 생활복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적으로 약 50일간 연구 및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TF팀 운영으로 광주시에 수립한 기존 시민복지기준과 차별화된 현실적이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복지 기준을 마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저소득 가구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장학회, 장학생 141명 선발...30일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와 (재)광주북구 장학회는 16일 "2018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

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생 선발대상은 저소득 자녀·성적 우수자 등 고등학생 70명과 대학생 71명 등 141명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 50만원, 전문대학생 100만원, 종합대학생 15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0월 15일) 현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성적우수 장학생과 저소득 장학생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성적우수 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2018년 1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과목이 2등급 이내여야 하며,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4.0이상(4.3만점은 3.8)이어야 한다. 저소득 장학생은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세대로 고등학생은 2018년 1학기 과반수 과목 이상의 성적이 5등급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3.0이상(4.3만점은 2.8)이어야 한다. 북구는 선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 개최하는 시상회를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되며, 12월 중 장학금 지급 수

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410-6716.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